

2026.03.03.(화) 증권사리포트 "사피엔반 도체, 2026년 AR Glass 본격적 출시의 수혜 기대"

◆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은 증권사 홈페이지(링크삽입)에서 확인해주세요.

올릭스

비만 판도 바꿀 siRNA, 릴리 파트너십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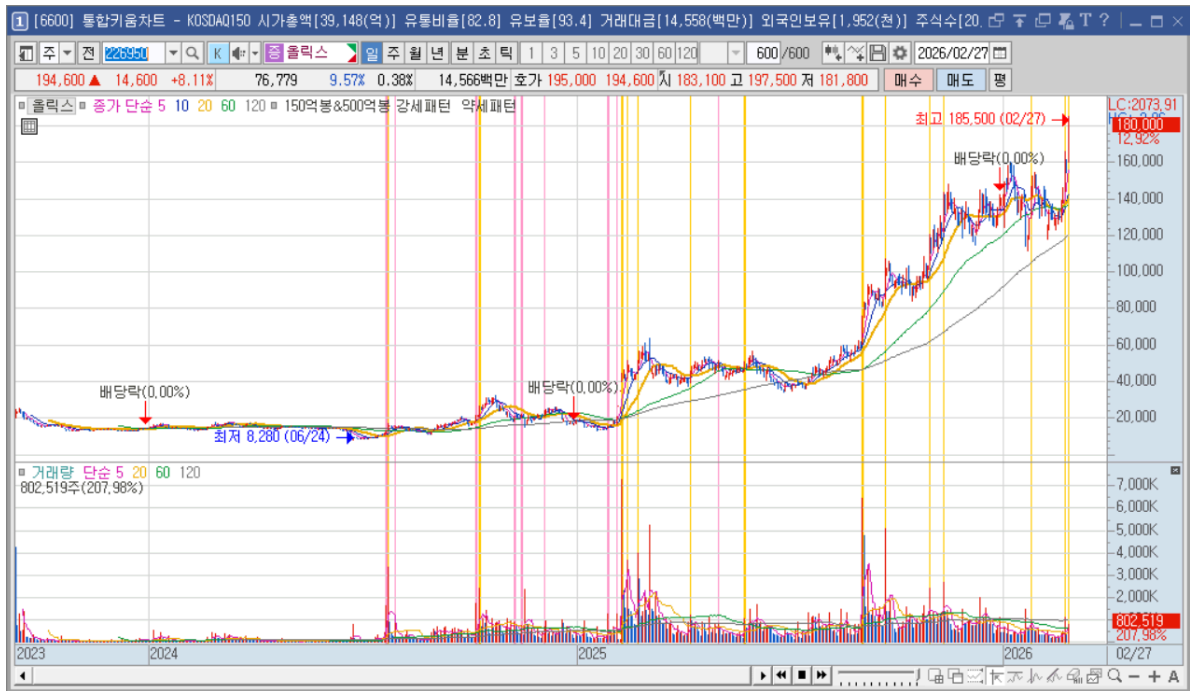
[출처]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애널리스트

독보적인 릴리 siRNA 파트너십 가치와 비만 치료제 병용 시너지 기대

신한투자증권은 올릭스에 대해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이 릴리의 전 세계 유일한 siRNA 파트너사로서의 가치가 저평가되었다고 분석했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경쟁사 애로우헤드가 siRNA 치료제와 쥬바운드 병용을 통해 지방 중심의 감량 효과와 부작용 감소를 입증하며 비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가운데, 올릭스 또한 동일한 ALK7 파이프라인 및 추가 타깃을 보유하고 있어 릴리와의 협업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2~3분기 중 릴리에 기술이전한 OLX702A의 임상 1b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로레알과의 탈모 치료제 연구 진척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 등 다수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며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20	2.5	(16.2)	(19.4)	-	(42.8)	15.0	-	-
2021	3.7	(24.2)	(29.7)	-	(93.1)	30.3	-	-
2022	9.3	(22.4)	(19.5)	-	(46.2)	5.2	-	-
2023	17.1	(18.2)	(19.1)	-	(33.0)	4.9	-	-
2024	5.7	(30.9)	(40.7)	-	(120.1)	19.9	-	-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코오롱인더

2026년 이익 개선 국면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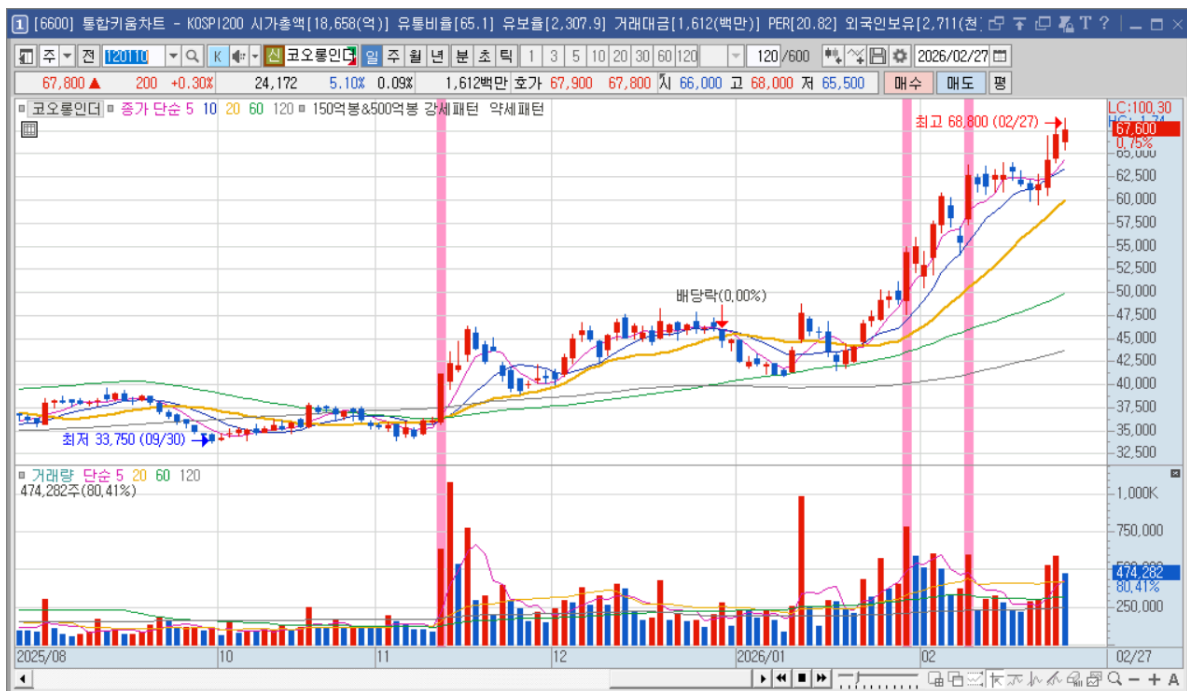
[출처] 하나증권 윤재성 애널리스트

일회성 비용 해소 및 전자소재 사업 성장에 따른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하나증권은 코오롱인더에 대해 2025년 4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으나,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개선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재성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2026년 1분기부터 전 분기의 일회성 손실이 제거되면서 전 사업부의 실

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며, 특히 아라미드의 가동률 상향과 mPPO 등 고부가 전자소재 사업의 이익 기여도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익 추정치 상향과 더불어 보유 중인 금융지주 및 코오롱스포츠차이나의 지분 가치 상승분을 기업가치에 반영하여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9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지표	2023	2024	2025P	2026F
매출액	4,734.9	4,843.0	4,873.4	5,008.6
영업이익	199.7	158.7	108.9	212.0
세전이익	146.7	121.4	45.1	244.7
순이익	42.8	98.6	45.3	165.8
EPS	1,412	3,256	1,496	5,163
증감율	(76.22)	130.59	(54.05)	245.12
PER	31.52	8.34	29.98	13.09
PBR	0.48	0.23	0.37	0.59
EV/EBITDA	7.50	7.42	9.14	7.74
ROE	1.58	3.06	1.24	4.46
BPS	92,516	120,397	120,588	115,491
DPS	1,300	1,300	1,300	1,300





한국금융지주

비싸다고? 나 지금 2조 버는데?

[출처] SK증권 장영임 애널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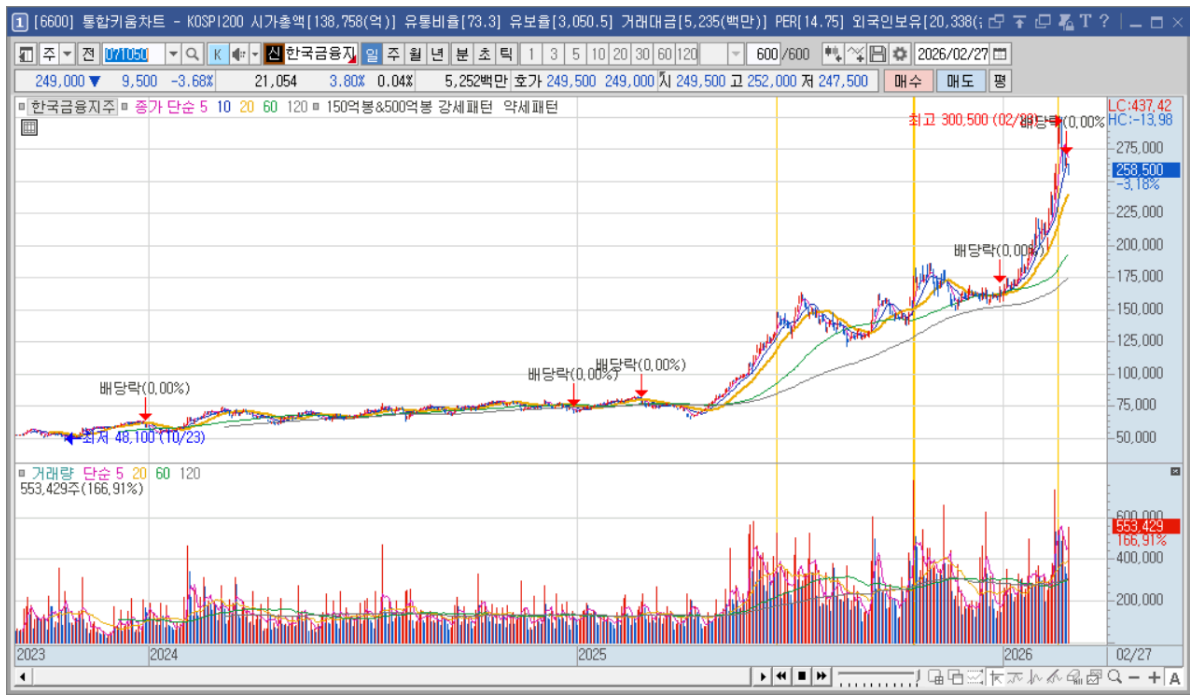
브로커리지 호황과 IMA 흥행 기반의 압도적 ROE 및 밸류에이션 매력

SK증권은 한국금융지주에 대해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와 IMA 상품의 흥행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영임 SK증권 애널리스트는 2026년 연결 지배주주순이익이 2.2조 원을 상회하고 ROE가 17.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P/B 1.2배 수준에 불과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배당성향 확대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며 기존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본 재배치를 통한 발행어음 한도 확대 등 북 비즈니스 성장에 따른 리레이팅이 기대된다고 덧붙이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99,000 원을 신규 제시했다.

영업실적 및 투자지표

구분	단위	2025P	2026E	2027E
순영업수익	십억원	4,009	4,334	4,777
영업이익	십억원	2,345	2,585	2,937
순이익(지배주주)	십억원	2,020	2,236	2,476
EPS	원	34,598	38,290	42,404
BPS	원	205,667	236,967	269,451
PER	배	2.1	7.6	6.9
PBR	배	0.4	1.2	1.1
ROE	%	18.7	17.3	16.7
배당성향	%	25.1	25.6	25.0





사피엔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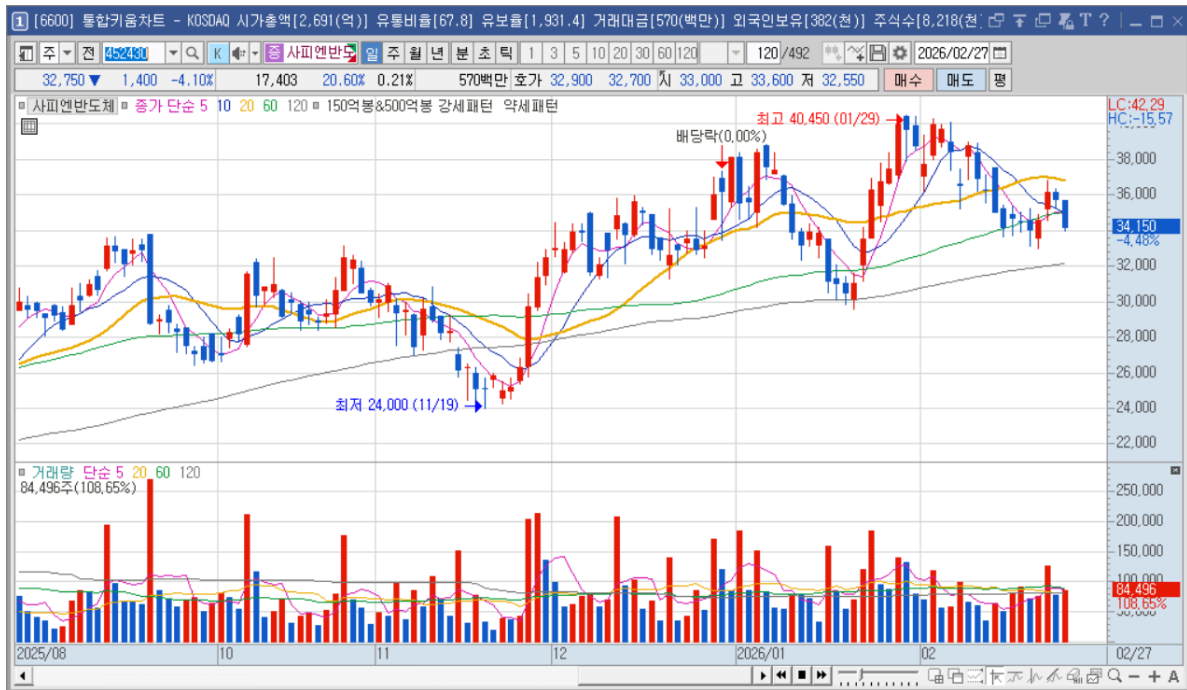
2026년 AR Glass 본격적 출시의 수혜 기대

[출처]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애널리스트

글로벌 빅테크향 NRE 계약 확대와 양산 제품 매출을 통한 흑자 전환 전망

유진투자증권은 사피엔반도체에 대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LEDOS NRE 계약이 본격화됨에 따라 2026년이 실적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25년 4분기 실적이 인력 총원 등 고정비 증가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으나, AR 글래스 출시를 앞둔 북미 및 아시아 기업들과의 용역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6년 하반기부터 제품 매출 양산이 개시되면서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11.2%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유사 기업 대비 높은 성장 잠재력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보고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12월 결산(삼역원)	2024A	2025E	2026E
매출액	80	173	366
영업이익	-34	-43	36
세전손익	-17.1	-45	43
당기순이익	-17.1	-45	43
EPS(원)	-2110	-550	517
증감률(%)	na	na	흑전
PER(배)	na	na	66.0
ROE(%)	-125.2	-30.8	28.2
PBR(배)	7.0	21.7	16.3
EV/EBITDA(배)	na	na	62.5





SK하이닉스

2026년 영업이익 170조원으로 상향

[출처] 키움증권 박유악 애널리스트

AI 메모리 수요의 NAND 확산과 범용 제품 가격 급등에 따른 실적 폭발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AI용 메모리 수요 강세가 모바일 등 범용 제품의 가격 급등으로 전이되면서 2026년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32조 원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것이며, 범용 DRAM과 NAND의 판가 전망치 상향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170조 원으로 대폭 높였다고 분석했다. 메모리 사이클이 가격 상승에서 출하량 증가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진입했음을 강조하며, 실적 상향 조정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30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32,766	66,193	97,147	230,200
영업이익	-7,730	23,467	47,206	170,077
EBITDA	5,943	36,049	60,118	185,287
세전이익	-11,658	23,885	50,465	172,796
순이익	-9,138	19,797	42,948	134,350
지배주주지분순이익	-9,112	19,789	42,931	134,294
EPS(원)	-12,517	27,182	58,970	184,469
증감률(%YoY)	적전	흑전	116.9	212.8
PER(배)	-11.3	6.4	11.0	5.8
PBR(배)	1.9	1.7	4.1	3.1
EV/EBITDA(배)	22.0	3.9	2.4	0.4
영업이익률(%)	-23.6	35.5	48.6	73.9
ROE(%)	-15.6	31.1	45.1	73.5
순부채비율(%)	52.3	20.4	-5.0	-32.2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